

142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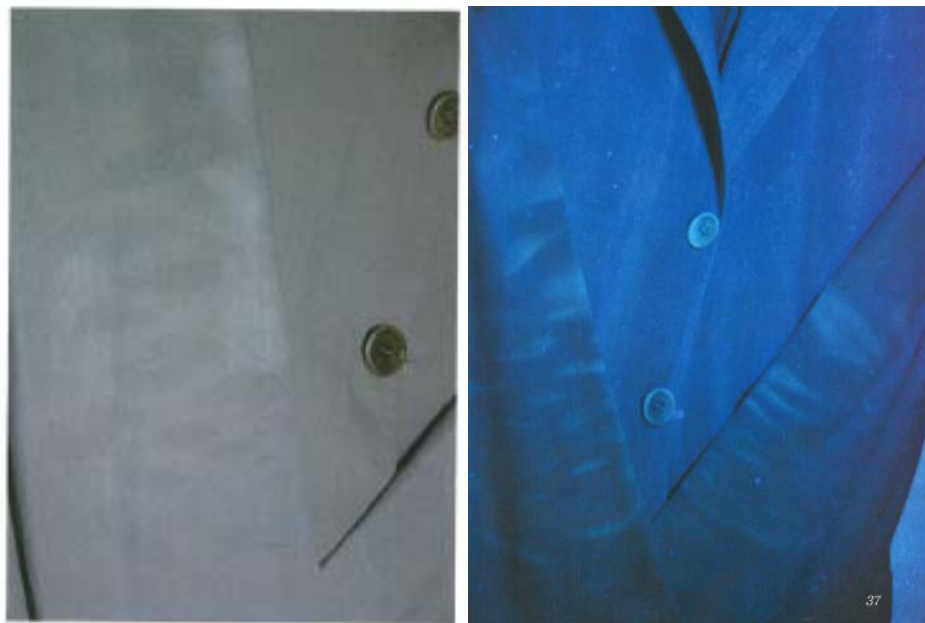
(9) 땀일광 견뢰도가 약한 재킷

□ 땀일광 견뢰도가 약한 재킷

- 클리닝 했는데, 양 소매에 줄무늬 모양으로 퇴색이 발생하였고, 이 재킷은 걸감이 면인 여름 재킷임.

해설)

- 옷깃 주위에도 퇴색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블랙 라이트 관찰시 다량의 땀 성분에 포함되어 있던 아미노산에 의한 형광반응을 볼 수 있음. 또, 양 소매에도 줄무늬 모양의 형광반응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음.



- 이것으로부터 의류에 포함되어 있던 땀 성분과 팔을 접어 구부렸을 때에 발생하는 구부린 주름에 손바닥의 땀이 묻고, 자외선 영향도 받아 땀일광 견뢰도가 약해져 반응염료가 분해된 것으로 추정됨.

- 또 클리닝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어서 결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, 클리닝에 의해서 퇴색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